

국어의 연결어미 독립절(단편문)에 대하여*

구종남**

|| 차례 ||

- I. 서론
- II. 연결어미의 독립절 형성 기능과 그 성격
- III. 독립절 가능 연결어미의 검토
- IV. 독립절 연결어미의 조건과 특성
- V. 결론

【 】

본고에서는 후행절이 뒤따르지 않음으로써 연결어미로 종결되는 언어 형식에 대해 그 형식의 통사적 범주는 무엇이며 이런 형식에서 쓰일 수 있는 연결어미들의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러한 형식은 생략과 도치의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바, 도치의 경우는 후행절이 외형적으로 존재하나 생략의 경우에는 표면상 후행절이 드러나지 않는다.

연결어미로 끝나는 형식은 후행절을 회복시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이를 일종의 단편문이라고 보고, 이 형식은 연결어미로 끝나는 선행절이 후행절 없이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결어미 독립절(단편문)이라고 불렀다.

독립절 연결어미로 쓰일 수 있는 연결어미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생략에서는 연결어미의 구어성이 독립절 연결어미로 쓰일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한편 도치 상황에서는 구어적 연결어미 외에 일부 문어적 연결어미들도 독립절 연결어미들로 쓰일 수 있었다. 독립절 연결어미로 쓰일 수 없는 연결어미들은 ‘-은지라’, ‘-을새’ ‘-은즉’, ‘-은바’, ‘-거니와’, ‘-을진대’, ‘-되’, ‘-며’ 등 문어적 특성을 가진 것들로서 이들

* 이 논문은 2018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조성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연결어미는 비명시적인 의미를 가져 선행절과 후행절을 직접적이고 논리적인 의미 관계로 연결하지 않는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는다. 본고에서는 바로 이런 의미적 특징이 독립절 연결어미로 쓰일 수 없게 하는 이유라고 해석했다.

주제어 : 연결어미, 도치, 생략, 구어, 문어, 단편문, 독립절, 독립절 연결어미

I. 서론

연결어미는 선행절과 후행절을 통사·의미적으로 관련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연결어미 뒤에 후행절이 이어지지 않음으로써 표면상 연결어미로 끝나는 형식은 두 가지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그 한 가지는 이 형식에 쓰인 그 연결어미가 문법화되어 종결어미로도 쓰이는 경우로서 언어 형식은 정상적인 문장이 된다. 만일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된 것이 아니라면 이 형식은 변칙적인 종결 형식으로서 정상적인 문장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연결어미로 종결되는 언어 형식과 관련하여, 전자의 경우는 문법화에 의해 종결어미가 되는 연결어미는 무엇이 있으며 이러한 문법화의 원리와 종결어미로서의 의미 기능이 무엇인지가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그러한 언어 형식의 통사 범주상의 성격이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지닌 연결어미가 이런 용법을 갖는지를 밝히는 것이 관심사가 될 것이다.

연결어미가 형식상 종결어미 위치에서 쓰이는 경우에 대한 이전의 연구는 연결어미가 의미 변화를 일으켜 종결어미로 변한 것들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도치나 생략에 의해 연결어미가 이끄는 절로 (발화나 문장이) 종결되는 형식의 경우 어떤 연결어미들이 이런 용법이 가능한지에 관심을 둔 경우도 있었다.

이전의 연구에서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와 연결어미 형태의 종결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 사실이 밝혀졌으나 이전 연구는 논의 방식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들 어미들에 대해서는 논의해야 할 문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먼저, 연결어미가 문법화된 경우와 단순히 연결어미절이 후행절 없이 사용되는 경우를 구별하지 않는 연구가 있었으며,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연구에서도 이른바 연결어미가 종결어미적 용법을 갖는 어미 목록에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여 논의하고 있다. 둘째, 종결어미화되지 않은 연결어미가 이른바 ‘종결어미적 용법’을 갖는 경우에 대한 논의에서도 그러한 용법을 갖는 어미로 보는 연결어미 종류가 논자들마다 차이를 보인다. 셋째, 어떤 특성을 갖는 연결어미가 종결어미적 용법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넷째, 이전의 논의에서 연결어미절로 종결되는 형식에서 이들 연결어미는 ‘종결어미적 용법’을 갖는다고 보고 있는바, 과연 이들 어미를 ‘종결어미’와 관련짓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다.

모든 연결어미가 후행절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에 쓰여 그것이 결합된(선행)절을 변칙적 용법으로 만들지는 않는다. 많은 연결어미가 이런 방식으로 쓰일 수 있으나 어떤 어미들은 이런 용법을 갖지 못하며 이런 용법은 도치와 생략에서 그 양상이 다르다. 본고에서는 국어의 모든 연결어미 중 이렇게 후행절이 뒤따르지 않아 연결어미로 끝나는 절에 쓰일 수 있는 연결어미들의 특성을 생략의 경우와 도치의 경우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들이 이루는 형식의 통사적 성격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기로 한다.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II에서는 연결어미가 독립절을 형성하는 양상과 이 절의 통사 범주적 특징을 논의하고, III에서는 검토 대상 연결어미를 확정한다. IV에서는 독립절 연결어미로 쓰일 수 있는 연결어미의 조건과 특성을 논의하고 V에서는 논의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Ⅱ. 연결어미의 독립절 형성 기능과 그 성격

1. 연결어미와 독립절

후행절이 이어지지 않음으로써 선행절을 변칙적으로 쓰이게 하는 연결어미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 (1) 가. 미자는 도서관 갔어. 책 빌리려고.
- (2) A: 나 그거 안 살 거야.
B: (왜,) 값이 비싸서?
- (3) (옷을 잘 차려입은 친구를 보고) 옷이 멋진데!
- (4) (형이 줄넘기를 하는 것을 보고 동생이) 나도 줄넘기 할 줄 알거든.

‘-려고’, ‘-아서’, ‘-는데’, ‘-거든’은 접속문에 쓰이는 연결어미지만 위 예에서는 이들 어미로 끝나는 절에 후행절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은 표면상 모두 변칙적으로 쓰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려고’, ‘-아서’가 쓰인 경우와 ‘-는데’, ‘-거든’이 쓰인 경우는 성격이 다르다. 전자의 경우는 후행절이 명시적으로 존재하거나(도치 구문) 선행절에 해당하는 내용이 비명시적으로 존재하지만(생략 구문), 후자인 ‘-는데’와 ‘-거든’이 쓰인 경우는 연결어미와 형태가 동일하나 후행절을 상정하기가 어렵다. 이들은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화된 것들로서 연결어미로 쓰인 ‘-려고’, ‘-아서’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이다. 따라서 변칙적으로 쓰인 연결어미들은 ‘-려고’, ‘-아서’ 유형이다. 본고에서의 관심의 대상은 이와 같은 연결어미 유형이다. 원래 접속문에서 선행절은 후행절에 통사·의미적으로 의존적인 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려고’, ‘-아서’ 등이 쓰인 위와 같은 예는 형식상 이들이 이루는 선행절 뒤에 후행절이 이어지지 않아 후행절에 의존하지 않고 쓰일 수 있으므로 이를 독립절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¹⁾

이렇게 독립절에서 쓰이는 연결어미를 이전 논의에서는 연결어미의 ‘종결어미적 용법’으로 보았다.²⁾ 이러한 관점은 (1,2)에서 연결어미 뒤에는 수행 억양이 놓인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³⁾ (1,2)와 같은 연결어미로 끝나는 독립절(단편문)은 질문이나 서술 등의 문장 유형으로 나타나는 수 있으며 이들 어미 뒤에 ‘-요’가 결합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는 경어법상 반말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의 논의에서는 이런 경우의 연결어미를 연결어미의 종결화(전영진 2002:52), 종결어미 기능 연결어미(하지선 2006), 종결어미적 쓰임의 연결어미(김유진 2008)로 부르고 있다.⁴⁾⁵⁾ 여기서 비록 주술 구성을 갖추었다

1) 연결어미로 끝나는 언어 형식은 후행절이 전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적으로는 절이라고 할 수 있다. 표면상 후행절 없이 나타나는 형식은 (기본적으로는) 주술 구성 형식이라는 점에서 내적으로는 문장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들 형식이 독립된 발화로 쓰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을 연결어미 단편문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본 고에서는 이런 형식의 결과적 쓰임보다는 이것이 도출되는 내적 과정에 초점을 두어 연결어미 독립절로 부르기로 한다.

2) 이들 연결어미가 종결어미적 기능을 갖는다고 보는 입장은 이들 형식을 온전한 문장으로 보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3) 사실 연결어미 뒤에 이에 대응하는 후행절이 연결되지 않는 경우는 (1,2)와는 다른 경우, 즉 대화 상황에서 화자가 후행절을 미처 발화하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후행절을 발화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이은경 1999). 그러나 이 경우는 후행절이 존재하거나 이해되는 (1,2)와는 다르며, 연결어미 억양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문종결의 수행 억양이 놓이지 않으므로 연결어미는 그 자체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4) 한편 (3,4)와 같이 연결어미가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여 쓰일 때 이들은 비종결어미의 종결어미화(김태엽 1998:52)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전영진 2002),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하지선 2006), 종결어미(김유진 2008),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종결어미(손옥현 외(2009) 등 다양한 용어로 불렸다.

5) 물론 이들을 구별하지 않고 연결어미의 종결어미적 쓰임으로 일컫는 경우도 있으나(유현경 2003) 종결어미로 문법화된 연결어미는 그렇지 않은 경우와 마땅히 구별되어야 한다.

고 해도 생략이나 도치를 통해 연결어미절이 독립절을 이루는 경우, 이들 연결어미를 ‘종결어미’라는 용어와 관련지어 일컫는 것이 적절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2. 연결어미 독립절의 성격

먼저 다음의 예를 보기로 한다.

- (5) A: 와이셔츠가 어디 있지?
B: 옷걸이에.
- (6) A: 저걸 어떻게 잘랐어요?
B: 칼로.
- (7) A: 진주가 미국으로 가 버렸어.
B: 갑자기?

위에서 B의 발화는 문장의 일부가 생략됨으로써 나타난 것이다. 이들 형식에는 서술어도 없고 종결어미도 존재하지 않지만 이들은 단편문으로 불린다. 이들이 생략 전 문장의 한 성분에 불과하지만 일종의 문장으로 불리 는 이유는 이들에 수행역양이 놓이기 때문이다. (1, 2)와 같은 연결어미 독립 절도 회복 가능성과 연결어미에 수행역양이 놓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단편 문장 형식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⁶⁾ 이렇게 (1, 2)와 같이 연결어미로 끝나는 형식을 단편문이라고 볼 때, 이 경우 연결어미가 종결어미적인 용법이나 기능을 갖는다고 보는 이전의 견해는 문제가 된다.

(1, 2)와 같은 연결어미로 끝나는 형식은 자체적으로는 모든 정상적 문 장이 갖는 문장 종결소를 갖지 못해 종결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며, 생략

6) 연결어미로 끝나는 형식을 단편문으로 본 견해도 있다(이현희 1982).

된 주절을 전제로 해석된다는 점에서 생략이나 도치되기 전 접속문의 한 문장 성분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편문 (5, 6)에서 ‘-에’, ‘-로’가 조사이듯이 (1, 2)에서 용언에 결합된 요소는 연결어미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위 단편문들이 문장으로 불리는 것은 종결어미와 같은 문장 종결소를 포함해서가 아니라, 수행 억양 때문이다. 단순히 (1, 2)와 같은 단편문의 연결어미를 종결어미로 보는 논리에 따른다면 다른 경우의 단편문도 일종의 문장이므로 종결어미와 같은 것을 갖는다고 볼 수 있고, 결국 (5, 6)의 ‘-에서’, ‘-로’와 같은 조사를 종결어미로 볼 수 있게 하며 (7)과 경우는 \emptyset 와 같은 종결어미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른다. 요컨대 (1, 2)에서의 어미는 종결어미 같은 문장 종결소 역할을 할 수 없으며 연결어미 자체라고 해야 할 것이다.

Ⅲ. 독립절 가능 연결어미의 검토

1. 이전 논의에서의 ‘종결어미적 용법’ 가능 연결어미

도치나 생략에 의해 연결어미가 독립절을 이루어 단편문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연결어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밝히고 이들은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논의하기 위해, 먼저 이전의 논의에서 어떤 어미들이 생략이나 도치에 의해 소위 ‘종결어미적 용법’을 가질 수 있는 연결어미로 분류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권성미(2010)에서 제시한 이전 논의에서 종결어미적 용법을 갖는 것으로 파악된 연결어미는 다음과 같다.

〈표 1〉 종결어미적 용법 연결어미(권성미 2010 참고)

유현경 (2003)	-고, -아서, -고/고서, -으면, -은데, -지만, -으니까, -으려고, -으려, -든지, -느라고, -거든, -게, -도록
권재일 (2003)	-거든, -는데, -고/구, -으니까, -어가지구, -어서, -으려고, -으면서, -지만, -게, -느라고, -더니, -어도, -으라고, -으면
하지선 (2006)	-고, -는데, -거든, -니까, -다고, -어서, -다니까, -면서, -다면서, -는지, -다며, -면, -려고, -지만, -든지
손옥현, 김영주 (2009)	-거든, -게, -고, -는데, -다고, -다니까, -다면서, -려고

표에서 보듯이 각 논자별로 제시된 연결어미 목록은 다르며 이들 목록에는 ‘-거든, -고, -는데, -려고, -게, -도록’ 등 문법화에 의해 종결어미화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⁷⁾

여기서 문제는 왜 이처럼 종결어미적 용법을 보이는 연결어미들의 목록이 논자별로 차이를 보이는가, 그리고 이들 연결어미 외에 다른 연결어미들은 종결어미적 용법을 갖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종결어미적 용법을 가질 수 있는 연결어미들을 국어 연결어미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정밀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문제와 어떤 기준으로 연결어미의 종결어미적 용법을 판단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나 이 옷 사고 싶어.’와 같은 상대의 발화에 대해 ‘가격이 비싸도?’와 같은 발화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전의 논의에서는 ‘-아도’가 독립절 연결어미로서의 용법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독립절 연결어미로서의 용법을 갖는지에 대한 문제는 연결어미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연결어미로 끝나는

7) 연결어미가 의미 변화를 겪어 원래의 의미 기능과는 다른 의미 기능을 가짐으로써 이 어미로 끝나는 형식에 후행절을 회복할 수 없게 되면 종결어미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손옥현 외(2009)에 따르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종결어미, 연결어미 모두로 등재된 것들은 ‘-거니’, ‘-거들랑’, ‘-거든’, ‘-게’, ‘-고’, ‘-다고’, ‘-는데’, ‘-는지’, ‘-나’, ‘-니’, ‘-도록’, ‘-을세라’, ‘-려고’, ‘-어’, ‘-지’ 등이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단편문이 쓰이는 상황도 세분하여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존의 목록에는 피인용문의 중화된 연결어미 ‘-다/냐/라/자 + -고 하 + 연결어미’에서 ‘-고 하’가 생략되어 ‘-다/냐/라/자 + 연결어미’ 형식으로 쓰이는 ‘-다며’, ‘-다니까’ 등 인용축약형 연결어미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는바, 이들은 모두 종결어미화한 것들이다. 그러나 인용 접속문이 원형 그대로 쓰는 경우는 드물고 인용축약형 연결어미는 비축약형에 비해 사용 빈도상 구어 접속문에서는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므로 이들도 논의에 포함되어야 독립절 연결어미들의 특징과 전체 목록이 제대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2. 논의 대상 연결어미

이전 논의에서 독립절에 쓰일 수 있는 어미로 제시된 연결어미는 논자들마다 각기 다르며 그 수는 15개를 넘지 않는다. 따라서 국어의 연결어미 중 어떤 것들이 독립절 어미로 쓰일 수 있는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이익섭 외(1983)에 제시되어 있는 연결어미로 그 검토 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이익섭 외(1983)에서의 연결어미 목록이 국어의 연결어미 전체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연결어미라고 할 수 없는 것도 포함되어 있으나 종결어미적 용법의 연결어미의 전반적인 특성을 밝히는 데 충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전 논의에서 인용축약형 연결어미가 포함되었거니와 이들도 연결어미와 마찬가지로 절 접속의 기능을 가지며 종결어미로 변한 것들이 있으므로 이들도 논의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다. 수정된 이익섭 외(1983)의 연결어미 목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⁸⁾

8) 표는 이익섭 외(1983)의 연결어미 목록을 약간 수정한 것이다. 이익섭 외(1983)에는

〈표 2〉 이익섭 외(1983)를 수정한 국어의 연결어미 목록

의미 유형	연결어미
시간	-고, -으며, -으면서(이상 동시); -고서, -자, -자마자, ‘-아/어, -아/어서, -아서(이상 계기)
이유/원인	-아/어서, -아/어, -으니, -으니까, -으므로, -으매, -느라고, -은지라, -을새, -기에, -기로(서니),
양보	‘-아/어도, -더라도, -든지, -으나, -거나, -은들, -을지라도, -았자, -을망정
반의	-으나, -다만, -지만
가상 조건	-면, -거든, -왔던들, -더라도, -되
상황 조건	-으니, -는데, -건만, -은즉, -은바, -을진대, -거니와, -더라니
의도/목적	-으려, -으려(고), -고자
결과/목적	-게, -도록
수단/방법	-아/어, -아/어서, -고(서), -으며, -으면서
전환	-다가
강화	-을수록
필연	-아/어야

한편 인용축약형 연결어미는 구종남(2017)에서 검토되었는바, ‘-다며, -다면서, -대서, -다니까, -다기에, -다기로서니, -대도, -다지만, -다면, -다거든, -다더라도, -다는데, -다다가, -대야’ 등이 총 목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들이 독립절 연결어미로서 사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 독립절 연결어미 용법을 가진 연결어미들은 어떤 특징을 갖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부사절을 이루는 연결어미에 관심이 있었으므로 ‘듯’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연결어미로 볼 수 없으므로 표에서 제외하였다. 이 표에는 체언에만 결합되는 ‘-이라(서)’와 ‘-이라도’, 인용 구성과 관련된 ‘-다(고)’, ‘-아서’에 ‘-는’이 결합된 ‘-아서는’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이 표에는 ‘-서’와 같은 수의적인 요소를 가진 형을 별도로 분리 표시한 경우도 있다.

IV. 독립절 연결어미의 조건과 특성

1. 독립절 연결어미의 출현 환경

어떤 연결어미가 독립절 어미로 쓰일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먼저 도치와 생략을 구별해야 한다. 도치는 연결어미절에 후행되는 절이 정상적인 위치가 아니라 선행 위치에 나타나는 것이고, 생략은 연결어미절에 후행하는 절이 표면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즉, 전자는 연결어미절에 이어질 수 있는 절이 정상적인 위치는 아니지만 표면상 명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이며, 후자는 후행절이 표면상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다. 또한 후자는 담화 상황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전자는 문맥의존성이 낮은 경우에도 쓰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런 차이는 연결어미가 독립절에 쓰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도치와 생략에서 소위 연결어미의 종결어미적 용법은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 경우를 구별하여 논의하는 것이 독립절 연결어미로 쓰일 수 있는 연결어미들의 특성을 온전히 밝히는 데 필요하다.

두 번째는 모든 연결어미가 절만을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어미 중에는 구를 접속하는 어미도 있다는 사실이다. 보조동사 구성에 쓰이는 연결어미를 비롯하여 사동 구성이나 구 구성을 이루는 연결어미들은 구 접속 기능을 한다. 이들 구성은 접속문 구성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주술 구성을 갖춘 후행절이 도치되거나 생략되는 현상에 대한 고찰인 본고의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제 단편문을 이룰 수 있는 어미들은 어떤 속성을 지니는지 생략과 도치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2. 생략의 경우

앞서 이전 논의에서 독립절 연결어미로서의 용법을 갖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 ‘-아도’가 독립절에 쓰일 수 있음을 언급했거니와 이전 논의에서 독립절 연결어미에서 제외된 연결어미를 대상으로 독립적 연결어미로서의 용법적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전 논의에서 독립절 연결어미적 용법을 지닌 어미들은 모두 구어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 (유현경 2003).⁹⁾ 이익섭 외(1983)의 연결어미 목록에서 이전에 종결어미적 용법을 갖는 어미로 분류된 것을 제외한 구어적 연결어미는 ‘-다가’, ‘-아도’, ‘-든지’, ‘-왔던들’, ‘-어야’, ‘-을수록’, ‘-더라도’, ‘-다만’ ‘-고서’, ‘-을망정’, ‘-왔자’, ‘-거나’, ‘-자마자’, ‘-은들’, ‘-기에’, ‘-더라니’ 등이다.

이제 과연 이 연결어미들이 독립절에 쓰일 수 없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8) A: 벨이 울리기에 바로 뛰어나갔지.

B: 밥 먹다가?

(9) A: 내일 그냥 대회를 해야 할 것 같아요.

B: 비가 와도?

(10) A: 많이 사면 하나 더 줘요?

B: 응, 열 개 이상은 사야.

(11) (친구가 문제를 일으켰다는 말을 듣고) 그 녀석 어딜 가든지...

(12) (지인이 사업에 실패했다는 말을 듣고 아쉬워하며)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안 빌려줬던들...

9) 연결어미의 구어와 문어 자료에서의 사용 빈도에 대한 연구는 이은경(1999)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들 자료에 근거할 때 독립절에서 사용되는 연결어미는 모두 구어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구어성, 문어성 간의 엄격한 경계는 정하기 어렵다. 이은경(1999)은 문어와 구어 텍스트에서 쓰이는 연결어미를 통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구어성, 문어성 판단에 객관적인 참고 자료가 된다.

- (13) (잔소리를 해대는 아내에게) 저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 (14) A : 나 거기 안 갈 거야.
B : 출석 체크를 하더라도?
- (15) A : 아빠, 제발 허락해 주세요.
B : 이번에는 들어 준다만...
- (16) A : 동수 서울 갔어요.
B : 그 낡은 차를 몰고서?
- (17) A : 좀 더 드세요.
B : 그래, 먹고 힘들망정...
- (18) (친구와 다툼을 멈추면서) 너하고 얘기해 봤자...
- (19) (친구의 참석 여부에 관심이 없다는 표정으로) 그 녀석 오거나 말거나...
- (20) A : 글썸 나한테 설거지를 하라는 거야.
B : 집에 오자마자?
- (21) (계속해서 문을 세게 닫고 아들이 나가자) 아무리 잔소리를 한들...
- (22) A : 너는 왜 나와 있어?
B : 하도 덥기에/길래...
- (23) (배탈이 난 상황에서) 어쩐지 음식이 좀 이상하더라니...

예에서 보듯이 생략의 경우 구어적 연결어미는 모두 독립적 연결어미로 쓰일 수가 있다. 위의 연결어미 절은 이들 뒤에 문맥상 어떤 절이 회복될 수 있는지 이해될 수 있는 구문이다. 따라서 후행절 없이 자연스럽게 쓰일 수 있다. 이 경우 연결어미는 그 자체로서 독립적 의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생략에서의 독립절 연결어미로서 사용 가능성 여부는 후행절의 회복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유현경(2003)에서는 생략의 경우 양보나 가정을 나타내는 ‘-아도’, ‘-ㄴ들’, ‘-더라도’와 명확한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다가, -자, -자마자’, 조건의 ‘-아야’, ‘-거든’은 종결어미적 용법을 갖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 예들에서 보

듯이 이들은 모두 독립절 연결어미로서의 용법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런 특정한 의미적 조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구어적 연결어미는 모두 생략에서 독립절 연결어미로 쓰일 수 있다. 그렇다면 독립적 연결어미로 쓰일 수 있는 연결어미는 구어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필수적인가? 여기서 구체적인 의미는 다르지만 기본적인 의미 기능은 동일하며 구어와 문어적 용법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연결어미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들 어미들이 동일한 의미로 해석이 강요되는 예문을 통하여 독립절 연결어미로 쓰일 수 있는 조건이 구어적이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24) (비가 오는데 산행을 가려는 남편에게)

저 양반은 비가 {와도..., *올지라도...}

(25) A: 어제 왜 안 나왔어?

B: 다리가 {아파서, *아파, *아팠으므로}.

(26) A: 너 어제 왜 그렇게 서둘렀니?

B: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늦었으니}

(27) A: 철수 공부해요.

B: 텔레비전 {보면서?, ??보며}

‘-올지라도’는 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도’ 같이 양보를 기본적인 의미로 갖는다. 그러나 이 어미는 생략 구문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이들의 차이는 ‘-크지라도’가 구어적으로 쓰이지 않고 주로 문어적으로만 쓰인다는 점이다. ‘-아/어’도 ‘-아서’와 동일한 ‘이유’를 나타내고 ‘-므로’도 이유의 의미를 갖는 점은 이들과 마찬가지로. ‘-니까’와 ‘-니’도 모두 이유의 의미를 나타낸다. 한편 ‘-며’와 ‘-면서’도 동시적 시간을 나타낸다. 그러나 ‘-아/어’, ‘-므로’, ‘-니’와 ‘-며’는 독립절 어미로 쓰일

수 없다. 이런 차이는 이들이 구어적이냐 문어적이냐는 데서 기인한다. 구어적인 연결어미만이 독립절 연결어미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예는 더 추가될 수 있다.

(28) (배낭을 메고 차를 기다리는 친구에게)

아침부터 등산 {가려고?, *가고자? }

(29) (방금 외출했다 돌아오는 아빠를 보고 돈을 달라고 하는 딸에게 엄마가)

아빠를 {보자마자..., *보자...}

(30) (쌀을 씻는 엄마를 보고) 엄마, {밥하게?, *밥하도록?}

‘-고자’는 ‘-려고’와 같이 기본적으로는 의도나 목적의 의미를 갖는다. 시간 관계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 ‘-자’도 ‘-자마자’와 같이 즉시적인 후속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고자’, ‘-자’는 독립절 연결어미로 쓰이지 못한다. ‘-려고’와 ‘-고자’, ‘-자마자’와 ‘-자’의 차이는 각각 전자는 구어적이고 후자는 비구어적이라는 점이다. 한편 ‘-게’도 ‘-도록’과 같이 기본적으로 의도, 목적의 의미를 가지나 문어적인 ‘-도록’은 독립적 연결어미로 쓰일 수 없다.

위에서 확인되듯이 생략에서 독립절 연결어미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은 모두 구어적 성격을 띠고 있다. 즉, 구어적 연결어미들만이 생략에서 이런 용법을 갖는 것이다.¹⁰⁾ 이전 논자들이 독립절에 쓰인다고 보았던 연결어미와 위에서 검토된 독립절 연결어미들을 이익섭 외(1983)의 연결어미 목록에 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10) 위의 몇 예에서 살펴보았듯이 비구어적 연결어미는 독립절 연결어미로 쓰일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므로 본고에서는 생략에서 독립절 연결어미로 쓰일 수 없는 문어적 연결어미의 예는 더 이상 제시하지 않는다.

〈표 3〉 생략 상황에서 독립절에 쓰이는 연결어미

의미 유형	연결어미
시간	<u>-고</u> , <u>-으며</u> , <u>-으면서</u> (이상 동시); <u>-고서</u> , <u>-자</u> , <u>-자마자</u> , <u>-아/어</u> <u>-아/어서</u> (이상 계기)
이유/원인	<u>-아/어</u> , <u>-아/어서</u> , <u>-아/어</u> , <u>-으니</u> , <u>-으니까</u> , <u>-으므로</u> , <u>-으매</u> , <u>-느라고</u> , <u>-은지라</u> , <u>-을</u> <u>새</u> , <u>-기에</u> , <u>-기로서니</u> ,
양보	<u>-아/어도</u> , <u>-더라도</u> , <u>-든지</u> , <u>-으나</u> , <u>-거나</u> , <u>-은들</u> , <u>-을지라도</u> , <u>-았자</u> , <u>-을망정</u>
반의	<u>-으나</u> , <u>-다만</u> , <u>-지만</u>
가상 조건	<u>-면</u> , <u>-거든</u> , <u>-왔던들</u> , <u>-더라도</u> , <u>-되</u>
상황 조건	<u>-으니</u> , <u>-는데</u> , <u>-건만</u> , <u>-은즉</u> , <u>-은바</u> , <u>-을진대</u> , <u>-거니와</u> , <u>-더라니</u>
의도/목적	<u>-으러</u> , <u>-으려(고)</u> , <u>-고자</u>
결과/목적	<u>-게</u> , <u>-도록</u>
수단/방법	<u>‘-아/어</u> , <u>-아/어서</u> , <u>-고(서)</u> , <u>-으며</u> , <u>-으면서</u>
전환	<u>-다가</u>
강화	<u>-을수록</u>
필연	<u>-아/어야</u>

이제 인용축약형 연결어미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인용 축약형 어미들은 ‘-고 하’가 언어적 경제성을 위해 생략된 형으로서 모두 구어적 성격을 지닌 것들이다. 예문을 보기로 한다.

(31) (미자 동생을 만나서) 미자 아프다면서/며?

(32) A: 왜 약국에 가니?

B: 응, 애가 아프대서.

(33) A: 미자가 안 왔네?

B: 미자는 아프다니까.

(34) A: 너도 그 사람한테 돈 빌려줬니?

B: 응, 한 달만 쓰고 갚는다기에.

(35) A: 철수도 데리고 갈 거야.

B: 철수가 아프다더라도/아프대도?

- (36) A: 김씨가 그 돈을 받았대?
B: 쫓쫓, 아무리 돈이 급했다기로서니.
- (37) A: 난 그건 절대 안 팔아
B: 값을 두 배로 준대도?
- (38) (남편이 집안일을 전혀 안 도와주는 상황에서 아내가) 아무리 내가 죽겠단들...
- (39) (아이를 심하게 꾸중하는 여자를 보고) 애가 아무리 잘못을 했다지만.
- (40) A: 돈 갚을게.
B: 언제?
A: 그 사람이 돈을 준다면.
- (41) A: 미자 이거 먹으라고 해.
B: 응, 먹는다거든.
- (42) A: 그 사람이 갑자기 집을 안 산다는 거야,
B: 집을 산다다가?
- (43) A: 나 등산 갈 거야.
B: 오늘 비 온다는데?
- (44) A: 어떻게 하면 미자가 거기 간다고 할까?
B: 네가 돈을 준대야.

예에서 보듯이 인용축약형 연결어미는 모두 생략 상황에서 독립절에 쓰일 수가 있다. 구어적 연결어미는 모두 독립절에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이 인용축약형 연결어미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것이다. 요컨대, 구어적 연결어미만이 독립절 연결어미로 쓰일 수 있으며 모든 구어적 연결어미는 독립절 연결어미로 쓰인다. 따라서 생략에 구어적 연결어미는 독립절 연결어미적 용법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3. 도치의 경우

후행절이 명백하게 제시되지 않는 경우인 생략의 상황에서 독립절에 쓰일 수 있는 연결어미는 주절이 표면상으로 명백하게 존재하는 도치 상황에서도 모두 독립절 연결어미로 쓰일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도치의 경우는 생략 상황에서 독립절 연결어미로 사용될 수 없었던 것들만을 대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앞서 유의적인 관계에 있는 연결어미들 중 구어적인 성격을 지닌 것들은 생략이 가능했으나 문어적인 것들은 불가능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들 중 문어적인 연결어미는 도치에서 어떤 양상을 보일까?

- (45) 그는 그냥 떠나고 싶었다. 나중에 경고를 받을지라도.
- (46) 나는 그를 미워하게 되었다네. 그가 나를 배신했으므로.
- (47) 우리는 병원에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가 입은 상처가 너무 깊어.
- (48) 이제 우리는 돌아가려 하오. 모든 일이 다 마무리 되었으니.
- (49) 그는 길을 걸었다. 친구와 얘기를 하며.
- (50)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들어서자.
- (51) 그는 일찍 잠을 청했다. 아침에 일찍 떠나고자.
- (52) 그는 메모를 해 두었다.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예문에 쓰인 연결어미들은 생략에서는 독립절 연결어미로 쓰일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러나 도치 구문에서는 이들이 사용되는 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도치에서는 구어가 독립절 연결어미의 필요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도치 구문에서 독립절 연결어미로 쓰일 수 있는 문어적 연결어미가 더 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 (53) 딸도 암전할 것이다. 그의 어머니가 암전할진대.
- (54) 그 녀석은 끝내 대학을 포기해 버렸다. 내가 그렇게 말렸건만.
- (55) 그녀는 그의 말에 불쾌감을 느꼈다. (?)비록 내색은 안 했으나.
- (56) 그녀는 기분이 흠족했다. (?)남편이 그녀가 해 준 요리를 맛있게 먹었으매.

위에서 ‘-을진대’, ‘-건만’, ‘-으나’, ‘-으매’는 문어적인 성격을 지닌 연결어미들인바, 도치 구문에서 이들의 수용 가능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¹¹⁾ 그러나 이들 연결어미들이 도치 구문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해도 모든 문어적 연결어미들이 도치 구문에서 독립절 연결어미로 쓰일 수 있는 쓰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 예들을 보기로 한다.

- (57) 그들은 밖으로 나가 보았다. *밖이 몹시 소란한지라.
- (58) 사람들이 아무도 오가지 않았다. *밤이 깊을새.
- (59) 나는 통증이 가서 버렸다. *그 약을 먹으즉.
- (60) 그는 추방되어야 한다. *밀입국 사실이 드러난바.
- (61) 그 여자는 얼굴도 예뻐다. *마음도 착하거니와.
- (62) 그녀가 마음은 넓다. *키는 작되.
- (63)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다. *워싱턴은 미국의 수도이며

예문에 쓰인 연결어미 ‘-은지라’, ‘-을새’, ‘-은즉’, ‘-은바’, ‘-거니와’, ‘-되’, ‘-며’ 등은 문어적 연결어미들인바, 도치 구문에서 쓰이기 어렵다. 이들 어미들은 당연히 생략 구문에서도 쓰일 수 없으므로 결국 독립절 어미로 쓰일 수 없는 어미들이 된다. 요컨대 이들을 제외하면 국어의 모든 연결어미들은

11) ‘-으매’는 고어적 성격을 지니므로 도치에서 수용성이 떨어지나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나’도 도치에서 자연스럽다고만은 볼 수 없지만 수용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독립절 연결어미로 쓰인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이들 연결어미만 도치 구문에서 사용이 불가능할까? 이들 어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앞서 보았듯이 ‘-니’, ‘-므로’ 등 문어적 성격을 갖는 연결어미들도 도치가 가능하므로 이들 연결어미가 단순히 문어적이라는 사실은 도치 구문에서의 제약 조건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어미들이 도치 구문에서 사용될 수 없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어미들은 이유나 원인(‘-을새’), 가상조건(‘-되’), 상황조건(‘-은즉, -은바, -을진대, -거니와’), 나열(‘-며’) 등 다양한 의미와 관련되므로 연결어미들의 특정한 의미 유형이 도치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들 연결어미들이 갖는 공통적인 의미 특징이 존재한다. 그것은 이들 연결어미들의 의미는 선행절과 후행절을 직접적이고 명시적이고 논리적인 관계로 연결하는 의미 기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서’, ‘-니까’, ‘-므로’ 등은 명시적인 이유나 원인의 의미를 가져 선행절과 후행절을 논리적인 관계로 직접 연결하는 어미다. 그러나 ‘-을새’ ‘-은지라’는 비록 이유나 원인의 의미를 갖는다 해도 앞의 어미들과는 달리 그 이유나 원인의 의미가 명시적이지 못해 선행절과 후행절의 관계를 덜 직접적인 관계 의미로 연결한다고 할 수 있다. ‘-은즉’, ‘-은바’, ‘-을진대’, ‘-거니와’도 조건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나¹²⁾ 명시적인 조건의 의미를 갖는 어미가 아니므로 선행절과 후행절을 직접적이고 논리적인 관계로 연결하는 의미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되’도 조건과 관련된 의미를 나타내지만¹³⁾ ‘-면’, ‘-거든’ 등 직접적인 조건과는 달리 그것이 나타내는 조건의 의미가

12) 사실 이들이 직접적인 조건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한편으로 이들은 각기 다른 의미를 더 갖는다. 다만 이들이 나타내는 관계적 의미는 느슨하며 포괄적인 속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3) ‘-되’도 조건의 의미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덜 명시적이어서 직접적인 조건과 거리가 있다. 한편 ‘-며’는 동시의 의미를 나타낼 경우 ‘-면서’와 같이 도치 구문에서 독립절 어미로 쓰일 수 있으나 위 예문에서처럼 공간 나열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독립절 연결어미로 쓰이지 못한다. 공간 나열의 경우는 선행절과 후행절 간에 명시적인 논리적 의미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이들 연결어미들은 선행절과 후행절을 명시적 의미 관계로 긴밀하게 연결한다기보다 느슨하게 연결한다. 따라서 이들 연결어미들이 쓰인 접속문은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적 밀착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의미 기능적 특성이 선행절과 후행절 간의 도치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선행절과 후행절을 의미적으로 느슨하게 연결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이들 연결어미는 도치 구문에서 사용이 제약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의미 기능적 특징을 보이는 연결어미들이 선행절 뒤에 후행절(주절)이 연결되는 정상적인 구조를 벗어나, 후행절이 먼저 오고 연결어미절이 뒤에 오는 구조에 쓰이면, 선행하는 절(주절)과 연결어미절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게 됨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독립절 연결어미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독립절 연결어미로 쓰일 수 있는 연결어미는 생략 구문과 도치 구문에서 다르다. 생략의 경우 연결어미가 구어적 성격을 지니면 이들은 독립절 연결어미로 쓰일 수 있다. 도치의 경우는 생략에서 독립절 연결어미로 쓰일 수 있는 어미들뿐만 아니라 일부 문어적 연결어미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구어성 조건이 필수적이지 아니다. 결국 독립절 연결어미로 쓰일 수 없는 어미는 비구어적 성격을 지닌 ‘-은지라’, ‘-을새’ ‘-은즉’, ‘-은바’, ‘-거니와’, ‘-되’, ‘-며’ 등에 국한된다. 이들은 의미적으로 선행절과 후행절을 느슨하게 연결하는 어미라는 특징을 지닌다.¹⁴⁾ 이익섭 외(1983)의 연결어미 목록에서 독립절 연결어미로 쓰일 수 없는 것을 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독립절 연결어미로 쓰일 수 없는 어미

의미 유형	연결어미
시간	-고, -으며, -으면서(이상 동시); -고서, -자, -자마자, ‘-아/어, -아/어서, -아서(이상 계기)
이유/원인	-아/어서, -아/어, -으니, -으니까, -으므로, -으매, -느라고, -은지라, -을새, -기에, -기로(서니),
양보	‘-아/어도, -더라도, -든지, -으나, -거나, -은들, -을지라도, -았자, -을망정
반의	-으나, -다만, -지만
가상 조건	-면, -거든, -왔던들, -더라도, -되
상황 조건	-으니, -는데, -건만, -은즉, -은바, -을진대, -거니와, -더라니
의도/목적	-으려, -으려(고), -고자
결과/목적	-게, -도록
수단/방법	-아/어, -아/어서, -고(서), -으며, -으면서
전환	-다가
강화	-을수록
필연	-아/어야

14) 예외적으로 연결어미의 관계적 의미가 명백하고 분명한데도 도치에서 독립적 연결어미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필수적 조건을 나타내는 ‘-아야(‘-은대야’)가 이에 해당된다. ‘-아야’는 양보를 나타낼 때는 도치가 가능하나 예에서 보듯이 필수적 조건을 나타낼 때는 양상이 다르다.

- (i) 난 겁 안 먹어. 네가 아무리 협박을 해야.
- (ii) 그 애는 안 좋아할 거야. 네가 옷을 사 준대야.
- (iii) 그 사람도 너한테 잘 해 줄 거야. *네가 먼저 잘 해 줘야.
- (iv) 그 사람이 돈을 빌려 줄 거야. *네가 담보를 제공한대야.

(i, ii)에서 보듯이 ‘-어야(‘-은대야’)가 양보를 나타낼 때는 도치 구문에서 독립절에 쓰일 수 있으나 필수적 조건을 나타낼 때는 생략에서는 독립절을 이룰 수 있었지만 (iii, iv)에서 보듯이 도치에서는 이런 용법이 불가능하다. 조건의 의미를 나타내는 ‘-면’이 자연스럽게 도치 구문에서 사용되는 것을 고려하면 ‘-아야’가 구어적 성격을 갖는데도 도치에서 제약되는 것은 특이하다. ‘-아야’의 필수조건적 의미가 이 제약의 이유라고 생각된다.

4. 연결어미의 다의성과 생략 및 도치

연결어미는 거의 모두가 다의적이다. 그 중에는 서로 직접 관련되지 않은 상이한 의미를 갖는 연결어미들이 있다. 원인/이유와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니까’와 ‘-아서’, 동시와 대립을 나타내는 ‘-면서’ 등이 그것이다. 유현경(2003)에서는 이런 어미 중의 하나인 ‘-니까’가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낼 때는 도치가 불가능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 예문을 보자.

(64) (나 어제 정말 화가 났었어.) 아이들이 난리를 쳐 놓은 거야. 방에 들어가 보니까.

위 예문은 구어적 담화 상황에서 쓰이는바, ‘-니까’가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낼 때도 도치 구문에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제 원인/이유와 역시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아서’의 경우는 어떤지 살펴보기로 한다.

(65) 미나가 안 나오는 거야. 방에 들어가서.

시간적 선후 관계의 ‘-아서’의 경우 예에서 보듯이 구어적 담화 상황에서는 도치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서 한 연결어미의 특정한 의미가 도치에서 제약되지 않음이 확인된다.¹⁵⁾

한편 생략의 경우 연결어미가 독립절에서 쓰이는 경우는 지금까지 살펴본 앞의 예에서 보듯이 단독적인 상황(장면)과 대화 상황으로 구별된다.

15) 유현경(2003)에서는 ‘-고’가 시간적 선후관계를 나타낼 때는 도치에서 ‘종결어미’로 쓰일 수 없다고 보고 있으나 구어적인 담화 상황에서는 ‘-고’도 종결어미적으로 쓰일 수 있다(예: 우리는 거리를 걸어다녔어. 하루 종일 눈을 맞고) (사실 그의 예문에 쓰인 ‘-고’는 동시적이며 시간적 선후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

이제 연결어미가 ‘-니까’, ‘-아서’와 같이¹⁶⁾ 서로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의미를 갖는 경우 생략의 두 상황에서 두 가지 상이한 의미적 용법이 가능한지 살펴보기로 한다.

(66) A: 너 왜 병원에 가려고 해?

B: 배가 아파서.

(67) (짐을 가지고 밖으로 나오며)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68) A: 사람들이 왜 아우성이야?

B: 차가 안 오니까.

(69) (문을 닫으며) 밖이 시끄러우니까.

(70) A: 나 연희 만났어.

B: 서울 가서?

(71) (동생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자) 이 녀석이 방에 들어가서...

(72) A: 그것이 어디 있었다고?

B: 방에 들어가니까.

(73) (?)(가방을 찾다가 마지막으로 방에 들어가서 가방을 발견하고) 아이고, 방에 들어오니까...

(66-69)은 ‘-아서’와 ‘-니까’가 각각 담화 상황과 단독 상황에서 이유를 나타내는 경우이며, (70-73)는 담화 상황과 단독 상황에서 ‘-아서’와 ‘-니까’가 각각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다. 이들 어미는 모두 두 상황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이질적인 의미를 갖는 연결어미들의 경우 도치와 생략 모두에서 두 가지 의미로서의 용법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다만 ‘-아서’와 ‘-니까’는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 단독 상황에서는 혼잣말 상황에서만 자연스럽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16) ‘-면서’는 동시와 대립의 상이한 의미를 갖는다.

V. 결론

앞선 여러 논의에서는 선행절 뒤에 후행절이 뒤따르지 않음으로써 선행절이 연결어미 형태로 끝나는 경우, 이 연결어미를 종결어미적 용법으로 보았다. 또한 이전의 논의에서는 종결어미적 용법을 갖는다고 보는 연결어미가 논자에 따라 각기 달랐으며 그 수도 15개를 넘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국어의 모든 연결어미를 대상으로 이처럼 후행절이 뒤따르지 않아 연결어미로 끝나는 절에 쓰일 수 있는 연결어미들의 특성을 밝히고, 이들이 이루는 형식의 통사적 성격은 무엇인지를 논의했다. 이 작업을 위해 이익섭 외(1983)에 제시된 연결어미 목록이 참고되었다. 연결어미로 끝나는 형식은 후행절이 전제되는 것이므로 일종의 단편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이 형식은 명시적인 후행절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면 독립절로 볼 수 있고 이들 독립절에 쓰이는 연결어미는 독립절 연결어미로 부를 수 있다.

논의를 통해 생략의 상황에서 구어적 성격의 연결어미는 모두 독립절 연결어미로 쓰일 수 있으며 구어적 연결어미 모두가 독립절 연결어미로 사용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결어미의 구어적 조건이 생략에서 필요충분 조건이 됨은 인용축약형 연결어미들에 의해서도 뒷받침되었다.

한편 도치의 상황에서는 모든 구어적 연결어미는 물론, 기본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갖는 상이한 연결어미들 중 문어적 성격을 가져 생략 상황에서 쓰일 수 없었던 ‘-고자’ 등과 같은 연결어미가 독립절에 쓰일 수 있었다. 또한 그 외에 ‘-을진대’ 등 문어적 연결어미도 독립절에 쓰일 수 있었다. 즉, 도치에서는 연결어미의 구어성이 독립절 연결어미 용법의 제약 조건이 되지 않았다. 다만 이익섭 외(1983)의 연결어미 목록 중 ‘-은지랴’, ‘-을새’ ‘-은즉’, ‘-은바’, ‘-거니와’, ‘-을진대’, ‘-되’, ‘-며’ 등 문어적 연결어미는 독

립절 연결어미로 쓰일 수 없었는바, 결국 이들은 독립절 연결어미로 쓰일 수 없는 전체 연결어미가 된다고 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들 연결어미는 명시적이고 분명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고, 비명시적이고 덜 분명한 의미를 가져 선행절과 후행절을 직접적이고 논리적인 의미 관계로 연결하지 않는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는바, 바로 이런 의미적 특징이 이들을 독립절 연결어미로 쓰일 수 없게 하는 이유라고 해석했다.

【참고문헌】

- 구종남, 「인용접속문의 축약현상 연구」, 『국어문학』 66, 2017, pp.125-155.
- 권성미, 「연결어미의 종결어미적 쓰임에 나타나는 억양의 중간언어 연구」, 『한국어교육』 21권 4호, 2010, pp.1-23.
- 김유진, 「한국어 문법항목 배열 연구 - 종결기능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태엽, 「국어 비종결어미의 종결어미화에 대하여」, 『언어학』 22권 0호, 1998, pp.171-189.
- 김태엽, 「국어 통용종결어미에 대하여」, 『현대문법연구』 18, 1999, pp.111-127.
- 방운규, 「간접 인용마디의 ‘-고 하-’ 구성에 대하여」, 『한말연구』 1, 한말연구학회, 1995, pp.139-154.
- 손옥현 외, 「한국어 구어에 나타난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 양상 연구」, 『한국어의미학』 28, 2009, pp.49-71.
- 유현경, 「연결어미의 종결어미적 쓰임에 대하여」, 『한글』 261, 2003, pp.123-148.
- 이금희, 「인용문 형식의 문법화」, 『국어학』 48, 국어학회, 2006, pp.238-258.
- 이소현, 「국어에 나타나는 한국어 연결어미 ‘-는데’의 의미 연구 - 수사구조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어교육』 22권 4호, 2011, pp.273-297.
- 이은경, 「구어체 텍스트에서의 한국어 연결 어미의 기능」, 『국어학』 34, 1999, pp.167-198.
- 이익섭 외, 『국어문법론』, 학연사, 1983.
- 이지양, 「국어의 융합현상과 융합형식」,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3.
- 이현희, 「국어 종결어미의 발달에 대한 관견」, 『국어학』 11, 1982, pp.143-163.
- 임홍빈, 「문종결의 논리와 수행-억양」,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 9권 0호, 1984, pp.147-182.
- 전영진, 「국어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전혜영, 「접속어미 ‘-다면’의 의미 기능」, 『이화언문논집』 7, 1984.
- 채숙희, 「현대 한국어 인용구문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11.
- 하지선, 「연결어미의 의미 확장과 한국어 교육」,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문법론』, 한국문화사, 2006, pp.399-482.

- Hopper, Paul J. and Elizabeth Closs Traugott,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Matthews, D. H., *Morp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4.
- Partee, B. H., The Syntax and Semantics of Quotation, Kiparsky P. and S. Anderson(eds.), *A Festschrift for Morris Halle*, Holt Rinehart and Winston, New York, 1973, pp.410-418.
- Wierbicka, A., The Semantics of direct and indirect discourse, *Papers in Linguistics* 7, 1974, pp.267-307.

Abstract

On the connective endings in independent clauses

Koo, Jong-nam

A compound sentence consists of a preceding clause and the following clause. But sometimes a preceding clause which ends with the connective ending is used without a following clause. I named it independent clause (a kind of sentence frag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connective endings which are used in independent clauses.

This paper showed that in ellipsis situation all the oral connective endings can, but any written style connective endings cannot be used in independent clause. In inversion situation not only oral connective endings but also some written style connective endings can be used in independent clause.

The connective endings which cannot be used in independent clause are ‘-eunjira(은지라)’, ‘-eulsae(을새)’, ‘-eunjeuk(은즉)’, ‘-eunba’(은바), ‘-geoniwa(거니와)’, ‘-euljindae(을진대)’, ‘-doi(되)’, and ‘-myeo(며)’. The semantic properties of these endings are obscurity and wobbly meaning. This paper argued that the obscurity and looseness of these connective endings in meaning block the inversion in compound sentences.

Key Word : connective ending, inversion, ellipsis, spoken language, written language, sentence fragment, independent clause

구종남

소속 :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전자우편 : jnkoo@jbnu.ac.kr

이 논문은 2018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8년 12월 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8년 12월 10일 게재 확정됨.